

북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사태 파악 나서

농림부는 북한 평양의 한 닭 공장에서 수천마리의 닭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집단 폐사했다는 것으로 알려지자 통일부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 소식통과 농림부에 따르면 북한 평양의 5대 닭공장 가운데 하나인 해당 닭 공장에서 한 달 전 수천마리의 닭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집단 폐사해 북한당국이 비상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단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섰다며 만약 북한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닭과 오리 등 북한산 가금육이 수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에 북한산 닭을 첫 수입할 예정이던 한 국내 수입업체 관계자는 북측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공식 통보를 아직 못 받았다고 하며 북한산 닭고기 수입은 이번 사태가 진정된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혀 북한산 닭 수입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업체는 당초 오는 17일 북한 남포항에서 닭을 선적하여 인천항을 통해 북한산 닭고기 40톤을 처음으로 들여온 뒤 연간으로 최대 2천톤 규모의 물량을 국내 닭 가공장과 대형 유통점등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북한산 닭고기 수입이 사실로 드러나자 육계업계는 수입업체 파악은 물론이고 수입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 일본 수출길 다시 열려

지난해 12월 22일 조류인플루엔자(H5N2형) 확인으로 중단됐던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의 대 일본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 농림부에 따르면 국내

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지난 24일 일본이 우리나라산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을 일본에 파견해 실무협의를 펼쳤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기간동안 예찰 및 방역조치 등 국내 상황자료를 일본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가금육의 일본 수출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내 계열업체들의 닭고기 신선육

수출은 그러나 국내산 닭고기값의 고공행진으로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장순(주)하림 부장은 “현재 국내 닭다리정육이 kg당 6700원에 형성되고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 판매되는? 일본산은 이보다 저렴한 6200원선”이라며 “4000원선은 돼야 수출을 시도할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금육 일본수출실적은 닭고기 51톤, 오리고기 91톤, 계육가공품 28톤, 삼계탕 330톤 등 500톤, 231만 4000달러이다.

(농수축산신문 2005-3-29)

‘안전성·환경개선’ 관심 확인-VIV Asia 2005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태국 방콕 바이텍(BITEC)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VIV Asia 2005’의 최대 관심사는 항생제 사용규제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물려 축산물의 안전 생산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로열 더치 자버르스사와 태국의 NCC 매니지먼트&디벨로프먼트사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

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37개국에서 480개 업체가 참가해 항생제 대체제로 광물질 및 생균제 등 사료첨가제와 양계기자재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 메리알, 아벤티스, 케민, 인터벳 등 다국적 기업이 주도한 축산관련산업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벨기에 소속 참가업체의 약진으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17개 동물약품업체가 한국관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 CJ그룹과 그동안 해외시장을 꾸준히 공략해온 건지와 인터히트, 동진BLS 등 기자재업체들이 다국적 기업과 당당히 경쟁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철 네오바이오(주) 대표이사는 “그동안 보호 받아오던 동물약품의 제조기술은 대부분이 오픈된 상태로 신제품 및 독보적인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동물약품 원료분야에 두각을 보여 온 중국이 완제품 시장에

진출하고 우리나라와 벨기에 등의 생산기술이 발전하면서 제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형철 한국동물약품협회 상무는 “이번 박람회는 일반 관람객이 적어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며 “수입국의 지위였던 우리나라가 한국관을 설치하고 수출국으로 거듭나려는 것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 관계자들도 상당히 의식하고 견제 심리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2005-3-23)

‘환경친화적 축사시설’ 시범 지원

농림부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환경친화적인 축사시설 설치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소·돼지·닭 사육농가가 기존 축사시설을 가축사육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해 새롭게 설치할 경우로 6개소에 58억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다. 개소당 지원사업비는 종돈장 15억원, 종계장 10억원, 양돈장 7억원, 낙농목장 4억원으로 사업물량은 사업신청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지원대상은 약취방지시설, 가축사육 마리수에 맞는 적정 규모의 시설과 가

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조경수 식재, 축사 도색 등을 통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축사를 짓고자 하는 농가이다.

농림부는 5월중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가축사육 밀집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축사는 철거 또는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서재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이 사업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축사모델의 성공 가능성이 입증되면 향후 농지 등에 축사시설 진입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수축산2005-3-23)

NEWS

2003 푸덱스 재팬(FOODEX JAPAN)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2003 푸덱스 재팬(FOODEX JAPAN)'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총 75개국 2517개 업체가 참가해 마케팅 공세를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나라는 117개 수출업체들이 참가해 김치, 인삼,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등 305가지 품목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난해보다 14% 높은 9781만달러 어치의 성과를 올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유기농·자연식품, 차·커피, 건강식품 등 3개의 특별 기획 전시관이 마련돼 식품의 안전과 환경·건강 관련 제품에 일본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같은 박람회 분위기에 맞춰 각 참가 업체들은 기능성식품 및 각국의 전통과 특징을 살린 제품을 전시하는 한편 시음·시식행사를 실시하는 등 치열한 홍보전을 벌였다. 유통공사는 신선농산물 안전성 홍보관'을 운영해 오이, 가지, 딸기, 미니토마토 등 안전성과 신선도를 중점적으로 홍보한 결과

1321만달러어치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한국관내에는 대형 벽걸이형 TV인 PDP를 설치됐으며, 인터넷에 박람회 현장을 실시간 중계해 유통공사 웹사이트를 방문한 세계 네티즌에게 한국관의 모습을 전송했다.

또 김치퓨전 요리교실과 생국·김밥 시연관, 우리 꽃과 김 나눠주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지소비자와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치퓨전 요리교실에는 8000여명의 소비자들이 몰려들어 시식을 하는 등 관심을 모은 가운데 김치전골, 돈육김치보쌈, 김치찌개 등의 메뉴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유통공사는 푸덱스 재팬의 주최측인 일본농물협회와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해 한·일간 국제박람회 협력 및 심포지엄 개최와 각종 교역 정보 제공 및 조사 의뢰 등 농수산물 수출관련 업무협조 체제가 구축되는 성과도 일구어 냈다.

행사를 주최한 일본농물협회 산업진흥본부의 케이트 던롭씨는 "이번 행사의? 주요 컨셉은 건강에 좋으면서 친환경적인 농산물과 식품"이라고 설명하고 "김치 등 한국식품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관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2005-3-19)

NEWS

세계 식품 키워드 「건강, 안심, 안전」

올해도 세계 식품업체 트렌드는 건강 지향과 안심·안전으로 모아졌다.

이같은 키워드는 지난 8~11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메세에서 음식(食)의 즐거운 새 발견:일본에서 세계까지, 세계에서 일본까지'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적인 식품 박람회인 푸덱스재팬(FOODEX JAPAN 2005)에서 확인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70여 개국에서 2500여 업체가 참가했으며 방문바이어만 9만여명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열린 「생산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특별전시」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식품의 안심·안전과 관련된 시스템, 솔루션 등을 맡고 있는 일본내 13개 정부기관, 단체들이 생산이력과 관련된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에는 일본 식품수급연구센터, 일본농림규격협회, 농협유통연구소 주최로 농림수산성이 지난해 추진한 식품 생산이력추적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일본관은 건강 지향적인 식품업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가운데 콩을 이용한 건강음료, 두부, 과자 등을 비롯 소금·식초·된장 등을 이용한 조미료, 특산가공품 등이 선보였다.

프랑스, 스페인이 대규모로 참가한 가

운데 유럽지역은 다양한 유기농제품을 내놓았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지역 참가업체들은 일본과 아시아시장을 겨냥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캐나다관은 다양한 식품·음료 시연회로 관람객들을 붙잡았다.

우리나라는 436평 규모에 87개 업체가 참가해 신선농산물, 김치, 인삼, 차류, 전통주류, 음료 등 농식품을 선보였다. 올해는 '휘모리'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음식 홍보관이 운영됐으며 농식품수출 홍보대사인 텔런트 양미경씨의 팬 사인회 개최 등 한국 농식품 알리기에 집중했다.

이영철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본마케팅팀 차장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높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며 "휘모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일본 내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2005-3-14)

NEWS

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도입 추진

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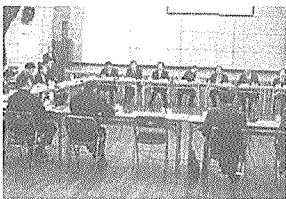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축산물중 단 한 건도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곳이 없는 등 아직까지 국내 실정으로는 유기축산물 생산이 요원하다고 보고 우선 유기축산물의 하위단계인 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서재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유기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유기축산물 인증신청을 한 곳은 있으나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곳은 없다”며 “이에 따라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모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달말까지 농림부의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수축산신문 2005-3-1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간담회 질의 응답내용

“항생제 수의사처방 꼭 필요한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 7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시된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한다.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최근 제주도 돼지콜레라 항원항체 관련 검역원의 발표에 양축농가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동물용 항생제의 오남용

문제도 안전성만 너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수의사 처방의 필요성에 대한 검역원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동가축방역관리시스템의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실효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농장에서의 HACCP 도입 문제도 원가 상승 문제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고려하고 농가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답변=제주도 돼지 콜레라 항원항체문제는 면역 증강제 포함 사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실험한 결과 확인된

NEWS

사항이다. 항생제 오남용 문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되지 않고 농가들이 자가진료를 많이 할 경우 소비자들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동가축방역관리시스템은 방역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네덜란드에서 성공한바 있듯이 우리도 양축농가들의 적극 적인 참여로 제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동홍 부회장(한국육가공협회)= 지난해 환경단체들이 육가공제품 내의 아질산염을 문제점으로 언론에 보도해 소비부진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지로는 허용치의 5%수준밖에 안 되는데 말이다. 언론의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한형석 회장(한국계육협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해준데 감사한다. 아직 닭고기 수출이 미미한 수준인데 자체검사원 이외에 관리수의사를 전담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 수출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타업무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답변=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

△김수근 회장(한국양육협회)=사슴만성소모성질병에 빠르게 대처한데 감사드린다. 전 두수가 모두 도축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된 엘크에 대해서는 개체별 체크가 가능하도록

이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었으면 한다.

△송석우 축산경제대표(농협중앙회)=돈사 등 축사의 장기사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지 호흡기 질병 등의 병원균에 대해 검역원에서 역학검사를 실시해 주면 방역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간지들의 폭로성 보도가 되지 않도록 검역원에서 대처해 주길 바란다. 질병이 확실치 않은 의심축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동준 회장(단미사료협회)=장관 직속의 차관급 동식물방역본부라면 검역청 개념인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답변=2004년 3월 조직개편(안)에 따라 6개월간 조직진단을 실시해 확대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다. 여러 단체의 협조 바란다.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구제역 등 질병에 대한 검사는 상당한 수준인데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명확하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보다 확실한 추적시스템이 요구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생산자단체와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답변=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농가들이 얘기를 안해주면 미궁으로 빠지기 쉽다.

NEWS

△김규중 회장(한국오리협회)=언론에 어느 선까지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지난번 저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마치 고병원성인양 보도되어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또한 채혈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방역

을 위해 감수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수 천만원씩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답변=농림부 등과 협의해서 과장 언론 보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농민신문2005-3-16)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속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체계가 평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3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하고 오리 및 철새에 대한 예찰도 지속 실시된다. 농림부는 지난 8일 조류인플루엔자 평시방역전환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경검역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하고 오리 및 철새에 대한 예찰을 지속 실시키로 했다.

국경검역에 있어 공항과 항만에서의 해외여행객에 대한 홍보, 소독 및 휴대품 검색 등 일상적 국경검역은 구제역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해 지속 실시한다. 또한 중국과 태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국 발생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수입금지 등을 통해 유입경로를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오리에 대해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1만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유입원인 철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도래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분변검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오리 일제검사시 채혈로 인한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혈요원 특별기술교육을 시도 방역본부에서 실시하고 검사이동제한 등 방역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행정 처분토록 했다.

고병원성에 준한 방역 조치가 요구되는 H5H7형 저병원성에 대해서는 인접농장이나 역학적 관련농장에 대한 검사·이동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임상증상 및 간이혈청검사(AGP)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농장에서 생산·판매되는 관련물품 이동 경로 파악 등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이동제한은 해제하고 추가정밀검사(분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축산신문 2005-3-16)

NEWS

HP AI 방역, 고삐 늦추지 말아야

자칫 느슨해 질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 AI) 방역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역당국 및 수의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다 지난 달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까지 종료됨에 따라 일선 농가들을 비롯한 가금업계의 경계심도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국내 양계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면서 HP AI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일부에서는 ‘겨울철 질병’이라는 인식이 아직 상존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맘 때에도 45일간 발생이 없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 가금업계에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과장은 이와관련 “가장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HP AI의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아님”을 강조, “태국과 베트남 등 기온

이 높은 지역에서의 발생 추세를 감안할 때 언제라도 국내에서의 재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방역당국도 지난 8일 농림부에서 평시방역체제로 전환에 따른 협의회를 열고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1월 이전까지 전국 시 군별로 권역내 도압장을 대상으로 일정물량의 오리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다음호 >

업계전문가들은 이와관련 “HP AI가 재발될 경우 국내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을 통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선 농가들의 철저한 경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도 타질병에 밀려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방역시스템 유지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2005-3-1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종합민원실 개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민원인들의 편의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본관동 1층에 종합민원실을 마련하고 9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민원실 개설로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및 검정신청 등 많은 민원

NEWS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은 일일이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민원실에는 인터넷 PC 등 각종 휴게·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있어 민원이 접수·처리되는 동안 민원인들에게 휴식공간과 편리함을 제공하게 된다.

박중명 검역원장은 “종합민원실을 활성화해 방문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2005-3-14)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진흥지역 축사신축 허용”

축산관련단체장들은 축산업 경영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신축 허용, 도축장 사용전기의 농업용 전환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장들은 7일 국립수의과 학검역원 대강당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표자회의를 갖고 축산업등록제 시행, 약취방지법 시행 등 축산환경 규제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축산업등록제의 시행에 따른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의 정부보조 혜택대상 제외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해 축단협 차원에서 소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단체장들은 또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내 축사 건축이 가능토록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축산물 종합처리장(LPC)을 비교했을때 RPC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지만 LPC는 산업용 적용으로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도축장 사용전기가 농업용 전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식품 가공업무의 일원화 논란 불식과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도입, 신축산회관 건립 등도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들이 힘을 결집키로 했다.

이들은 또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현 축단협 회장단을 유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축단협 회장에는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부회장은 박순용 한국중축개량협회장과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이 각각 1년간 연임하게 됐다.

(농수축산신문2005-3-9)

축사 환경개선제 바로 알고 쓰세요

악취방지법 시행이 눈 앞에 다가섬에 따라 축사 환경개선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 등은 크게 미흡해 축산농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환경개선제로는 무기물제제, 효소제, 활성탄, 목초액, 키토산, 해초 및 과일추출물 등 300여가지 품목이 유통되고 있지만 동물약품 허가 품목 등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은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무허가 품목과 특별한 검증이 없이 유통되는 제품이 상당수에 달하고 사용방법 등에 따라 가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들 제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법적 보상 등의 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서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개선제는 유효 미생물 수 등에 의해 제품의 효능과 특징이 발휘되지만 유효기간, 성분, 사용방법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올바른 환경개선제 사용방법 등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

하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동물약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경개선제는 악취법이 시행 되면 동물약품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품목중 하나이지만 제도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농가와 약품업계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사료첨가 및 물에 타서 음수로 급여하는 제품도 상당수에 달해 가축에 직접 피해도 우려됨에 따라 미허가 품목 단속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창범 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장은 “환경개선제는 산, 알카리, 일반 소독제 등과 병용해 사용하면 안 되는 등 제품마다 사용방법 주의가 요구되는 제품이 많다”며 “상당수 제품은 실제 실험을 거치지 않아 제품의 효과가 의심되는 만큼 농가에서 사용하기 전 공인기관에 의뢰해 유용한 제품내 미생물 수라도 검증을 받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2005-3-9)

2월 배합사료 생산 소폭 상승

2월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전월에 비

해서는 같은 수준에서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가 집계한 2월 배합사

NEWS

로 생산통계에 따르면 오리사료 전체 판매량은 14,46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반면 전월에 비해서는 같은 수준을 보였다.

품목별 판매량은 어린오리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2,148톤이 판매되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하였고 전월에 비해서도 10% 증가했다.

그러나 육용오리 사료는 6,493톤이 생산되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고 전월에 비해서도 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앞당겨져 판매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 큰오리 사료 판매량은 3,965톤이 생산되어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하였고 전월에 비해서는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새끼오리 생산을 예측할 수 있는 산란오리 판매량은 1,855톤이 생산되어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8% 늘어났고 전월에 비해서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월 전체 오리배합사료 판매량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어린오리 사료 및 산란사료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육용오리 사료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1월 중순부터 육용오리 부족현상에 따라 출하일령이 앞당겨진데다 산지가격이 5천원-5,500원까지 크게 상승한데다 새끼오리 가격역시 8백원-1천원의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종오리 사육량이 증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육관리 바닥재인 왕겨 부족...관리에 큰 어려움

오리 평사 사육관리 바닥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왕겨가 부족하여 오리 사육 관리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리 사육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왕겨 공급부족현상의 발생으로 사육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종오리 사육농장은 왕겨부족으로 바닥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종오리 위생관리 및 산란을 저하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왕겨부족현상의 원인은 겨울철에 미곡종합처리장의 대부분이 쌀소비 감소로 방아를 찧지 않아 생산되는 왕겨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왕겨 가격도 종전에 비해 크게 오른 가격에 거래되어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 오리 계열화업체는 깔짚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오리 사육 쿼터제 ... 주무부처 시행에 총력

중오리 사육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생산물량을 조절하는 중오리 사육 쿼터제의 시행만이 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틀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의 오리관련 주무부처는 중오리 사육 쿼터제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7일 오리생산관련 주무부처인 농림부 축경과 가금계관계자와 본회 김규중 회장, 영국 체리벨리사의 아시아 담당 관계자가 참석한 중오리 사육관련 회의에서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무부처 관계자는 육계 및 산란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계사육쿼터제 예를 들어 시행이후 지난 1년간 수급조절에 의한 가격상승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되어 이제는 업계가 먼저 나서 사육량을 적게 가져가고자 하고 있다며 오리업계 역시 중오리 사육 쿼터제 시행만이 산업발전과 사육 관련업계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로 이 관계자는 먼저 업계의 자율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나 생산과잉에 의한 경영악화는 계열 농가에 전가되어 농가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계열주최의 부도로 이어져 산업 전체가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수급안정에 의한 경영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제도의 오리업계 시행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제한 및 농장 채혈 손실 보상돼야

- 질병 발생에 대한 보도지침도 필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한 이동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질병예방을 위해 농장 채혈 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지적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3월7일 가진 축산관련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적됐다. 한국오리협회 김규중 회장은 간담회에서 질병검사

를 위한 농가채혈 중에 발생하는 중오리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질병발생 징후에 따라 취해지는 이동제한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수과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검사로 인해 죽거

NEWS

나 부상당한 가축 등에 대해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한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동제한기간 및 검사 등으로 인한 발생한 농가 손실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의

견을 수과원은 제시했다.

이밖에 김회장은 가축질병 발생시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보도할 것인지 보도지침을 정해 위험성 질병이 아닌 일반 질병발생 보도로 인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이로 인해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개 대학 대학생 창업 연수기관으로 선정

- 대학생 총 100명 영농창업 연수지원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영농창업 연수기회를 통해 우수한 인력이 농업부문에 영농정착기회를 높이는 제도가 시행되고 이를 위한 11개 대학이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금년에 신규로 도입된 대학생창업연수과정을 운영할 연수기관으로 11개 대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대학생창업연수과정이란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영농창업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부문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농림부는 연수기관 공모를 통해 신청한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서를 평가하여 11개 대학을 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각 대학은 10명 내외의 연수생(총100명)을 모집하여 1년간 이론, 실습, 및 현장체험으로 구성된 창업연수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정부에서는 연수기관에 연수생 1인당 연간 최고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은 공주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상지대학교, 진주 산업대학교, 건국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이다.

농림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의 연수운영방법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은 연수생 모집, 구체적인 연수계획서가 마련되는 대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능가... 방역 대책에 철저 기해야

국내 철새 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거 발견됨에 따라 사육농가는 이 질병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전국에 걸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특히 충남 서산시 천수만에서는 H5(3), H5N3(1)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병원성 바이러스라도 닭과 오리가 감염된 채 방치될 경우 고병원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농가에서 소독등을 통해 이 질병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북한에서 발병된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철새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

며 중국에서 날아온 철새가 북한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배설물을 떨어뜨린 데 이어 닭이 이 배설물과 접촉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까지 철새도래지에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경기 시흥시 시화저수지와 파주시 탄현면, 충북 음성군 삼성면, 충남 서산시 천수만, 전북 군산시 금강 하구 독, 경남 창원군 우포늪, 양산시, 북제주군하도리 등이다.

이와 같이 철새의 주요 도래지에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오리 사육농가들은 사육장내 철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단속 및 환기구에 대한 방충망 설치등과 매일 소독 생활화를 통해 이 질병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아세안 FTA 협상

-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협상 본격화

한-아세안, 한-유럽자유무역연합 등 무역을 자유화하는 FTA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농림부 국제농업국 통상

협력과 주제로 개최된 한-아세안FTA 간담회는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과, 아세안 지역 FTA에 대한 설명회와 각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한-유럽연합과의 FTA

NEWS

협상이 지난 1월 18일 개최되어 농업협정문 및 농산물상품양허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유럽연합은 300여개의 일부 가공농산물에 대해 EU와 동등대우 조건을 제시하고 양허 방식으로 즉시철폐와 관세를 일정부분 단순인하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허 할 것을 요구한 반면 우리정부는 점진적 철폐를 요구했다.

우리정부는 향후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세율이 낮은 품목과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하고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민감품목은 양허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며 오는 4월4일 서울에서 2차 협상과 5월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협상을 통해 양허협상을 최종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아세안 FTA 협상은 기본협정문을 올해 말까지 체결하고 2006년 말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지난 2월23일 인도네시아 아세안 사무국에서 개최된 제 1차 협상에서 상품무역에 관한 협상을 올연말까지 종료기로 합의하고 2차 협상부터는 상품양허원칙에 대한 협상과 기본협정,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에 관한 통합협정문을 작성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 상품양허(안)에 따르면 일반 품목군에 대해서는 09년까지 관세를 완전 철폐, 또는 관세철폐기한을 09년

후로 연장하며, 민감 품목군은 현재의 관세를 5%까지 감축하고 초민감품목은 50%까지 감축, 또는 양허제외토록 하고 있다.

향후 협상일정은 2차 회의가 서울에서 오는 4월18일, 3차회의 6월7일 싱가포르, 5차회의 10월11일 베트남 등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본회는 오리고기는 아세안 주요 수출국인 상위 5개국중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등에서 수입되거나 수입이 가능한 국에 해당하는 중요한 품목이라며 농경연인 분류한 민감품목의 상위인 고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5년간 오리고기 수입은 4백60만불 어치가 수입되고 오리고기 수입가격이 국내산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제시했다.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 마련 필요”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서울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춘계심포지엄에서 김유용 서울대 교수는 “기능성 축산물의 경우 식약청의 식품공전에 그 명칭이 없는 경우는 기능성 식품이 될 수 없는 법률적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며 “기능성 축산물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식약청에서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성분을 표시할 수 없게 규정해 놓았다면 아무리 실험적으로 입증됐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핵심 기능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셀레늄이 첨가된 우유와 계란의 경우 식품공정에 등재돼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규정에 따라 함량표기를 삭제하는가하면 아예 제품출시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기능성 축산물의 브랜드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체들이 법률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재정적 지원 외에 절차나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실무자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2005-3-7)